

2025

공익해봄 프로젝트 활동자료집

Project Activity Materials

작은 변화의 시작
첫 발걸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Gyeonggi center for Public Interest Support



CONTENTS

서문	02
Intro	
사업소개 & 성과	04
About, Impact	
함께 걸어온 길	10
Journeys	
일곱가지 여정	26
Project Stories	
공익의 온도	42
Feedback, Next, Companions	
더 깊이 보기	56
Appendix	

공익해봄 프로젝트 성과보고서 발간에 부쳐

존경하는 경기도 공익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이 뜻깊은 '공익해봄 프로젝트 활동자료집'을 펼치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5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선보인 청년 주도형 공익활동 지원 사업, '공익해봄 프로젝트'가 마침내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경기도의 여러 시군에서 모인 7팀의 청년들이 저마다의 예리한 시선으로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열정과 패기로 직접 실행에 옮긴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용기와 도전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불확실성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변화의 씨앗을 심고자 했던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과 헌신이 이 보고서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때로는 활동의 규모가 작다 여겨질지 모르나,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우리 사회를 더 이롭게 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의 사업 참여를 넘어, 이미 공익활동이라는 아름다운 항해를 시작한 선장들입니다. '공익해봄'을 통해 경험하고 깨달은 소중한 가치들이 더 큰 꿈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더 넓은 사회적 가치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이제부터 시작될 빛나는 미래의 여정을 힘껏 응원합니다.

2025년 12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유명화





2

사업소개 & 성과

About & Impact

사업소개

Ab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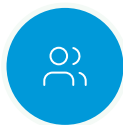
공익해봄 프로젝트란?

경기지역 청년들이 팀을 이뤄 관심 분야의 공익활동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기간

2025년 1월 ~ 12월



대상

경기도 거주, 생활권 청년(개인·팀)



예산

총 54,320,000원

주요활동

- 공익해봄 캠프 (1박2일 워크숍)
- 공익해봄 성장 (역량강화교육, 멘토링)
- 공익해봄 실행 (프로젝트 추진/7개팀)
- 성과공유회 등

지원사항

- 팀별 프로젝트비 230만원
- 1박2일 워크숍
- 역량강화교육 2회
- 팀별 멘토링
- 수료증 발급 및 시상

참여자수	29명, 7팀 (개인구성 3팀, 사전구성 4팀)	프로젝트	7개
지원금액	16,100,000원(팀별 230만원)	활동기간	2025. 5. ~ 10. (6개월)
활동주제	중장년층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연결, 노인 디지털리터러시, 환경, 지역소멸, 다문화, 장애인권, 교육 등		
활동형태	AI챗봇 개발, 교육·워크숍, 캠페인, 공동체 모임, 부스운영, 교구제작, 전시 등		



추진경과

Timeline

참여자 모집 및 홍보

25. 3. ~ 4.

대학생 및 청년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전개

OT 오리엔테이션

25. 5. 10

프로그램 소개 및
유의사항 전달

1차 역량강화교육(이론)

25. 6. 28

프로젝트 실행역량 강화교육
(노션, 브랜딩, 회계교육)

프로젝트 실행(7팀)

25. 7. ~ 9.

팀별 공익 프로젝트
현장 실행 단계

성과공유회

25. 11. 1

프로젝트 결과 발표, 회고
수료식 및 시상

25. 2. 13, 2. 18

1,2차 자문회의

프로그램 방향성 설정 및
전문가 의견 수렴

25. 4. 21, 4. 28

서류 및 면접 심사

지원자 역량 평가 및
최종 참가자 선발

25. 6. 6, 7 공익해봄 캠프(1박2일 워크숍)

집중 교육 및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

25. 7.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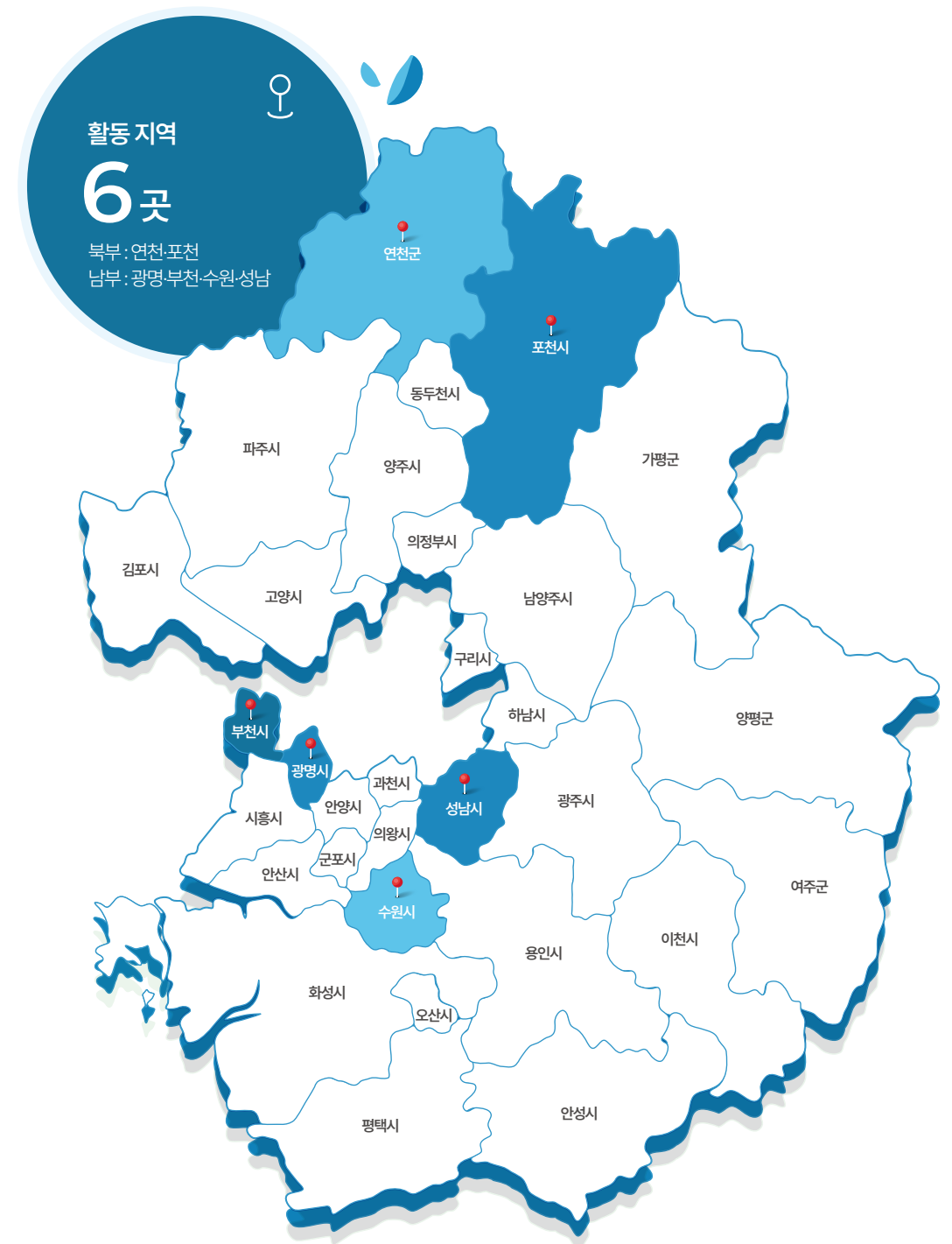
2차 역량강화교육(사례)

선배 활동가 사례공유
공익활동 지역사례 탐방

25. 6. ~ 9.

멘토링

청년활동가 멘토의
지속적인 팀별 코칭 및 피드백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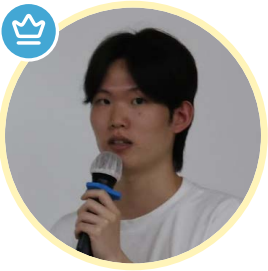
함께 걸어온 길

Journeys

참여자 소개

Teams / Participants

1. 가나다



김남호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이유림 다정해서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 살아가고 싶은

'공약'이라는 것이 진짜 있는지,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지 눈앞에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정은주 끈기 있는

부모님 세대이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소개

Teams / Participants

2. 다시쓸권리



강승한 진취적인

일상에서 느낀 불편과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고 싶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김건일 센스가 있는

환경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청년 환경활동가로서의 본격적인 발돋움을 하고 싶었습니다.

참여자 소개

Teams / Participants

3. 디지털ON기



노승현 도전으로 성장하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만들어가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다움 도전하는

저의 세상을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민서 달라진 나

같이 하자고 연락받아서 알게 된 활동이었는데, 쉽게 해보지 못할 새로운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소개

Teams / Participants

4. 몽당&GO



강주원 따뜻한 사람이 되고싶은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초등학교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들과 의미있는 한 걸음을 딛어보고 싶었어요.



이소진 발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참여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영 그림에도 완주한 몽당&GO

교사연구회 몽당분필에서 봉사활동을 계획하던 중 공익해봄 프로젝트를 알게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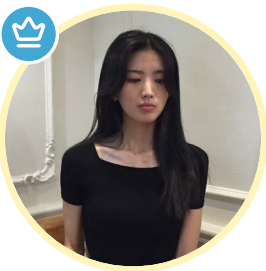
Teams / Participants

5. 손으로그리는세상



윤준서 아이디어뱅크

시각장애인 분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소정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성장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각에서 사회적 문제를 직접 이해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공익해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며, 성장을 위해 도전한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뤄내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소개

Teams / Participants

6. 인라이트



박진영 다정한 파도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하며 보았던 다름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활동키트를 만들고자 참여하였습니다. 공익해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 기획과는 달랐지만 인권을 주제로 모인 팀원들과 함께 더 넓은 의미의 '인권'을 다룰 수 있어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정재원 공익초보

살면서 공익 관련 활동을 직접 해본 적이 없었다. 막연하고 거창하게만 보이던 공익을 직접 경험해보고 배우고 싶었다.



조정민 항상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평소 누가 기획해놓은 활동만 해왔기에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공익활동을 해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소개

Teams / Participants

참여자 소개

Teams / Participants

7. 한울한울



김아영 주변을 밝히는 나!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해보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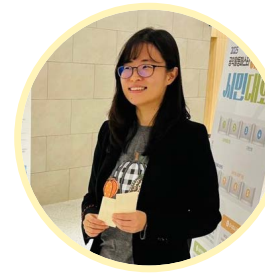
김혜진 새로움에 쉽게 빠지는 사람

사회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싶어 참여했습니다.



백준 열정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공헌하며, 이렇게 본격적인 공익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현장에서 직접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지연주 쑥스러운

지역에 필요한 소소한 활동에 대한 갈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예진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일구는

지역 소멸 위기라는 현안 앞에서 청년의 주체적인 참여와 시선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

Process

모집 및 홍보	
기간	25. 3. ~ 4.
대상	경기도 소재 대학교, 청년 커뮤니티,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내용	온라인(홈페이지, SNS, 카페, 블로그, 대외활동 사이트) 및 오프라인(사업설명회, 포스터), 유관기관 및 단체 등 홍보
모집인원	개인 26명, 팀 25팀



선정심사	
일시	25. 4. 21.(월), 25. 4. 28.(월)
장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온라인(ZOOM)
내용	서류(적격) 및 면접(비대면) 심사
경쟁률	개인 1:7:1, 팀 6.3:1



OT	
일시	25. 5. 10.(토) 10:00~11:30
장소	온라인(ZOOM)
참여자	총 30명 (선정된 팀 및 개인)
내용	사업전반 안내 및 유의사항 전달, 개인참여자 팀구성



사업 진행 과정

Process

공익해봄 캠프	
일시	25. 6. 6.(금) ~ 7.(토)
장소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 앤 컨퍼런스
참여자	총 38명 (참여자, 멘토, 센터 등)
목적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기획·소통역량 강화, 참가자 간 네트워킹 강화 및 팀빌딩
내용	팀소개, 아이스브레이킹, 소통교육, 멘토소개, 프로젝트 기획워크숍, 프로젝트 발표 및 상호피드백 등
	
comments	
처음에 참가자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활동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다른 팀의 프로젝트 기획과 다른 사람들의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 사람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것 같아 만족했습니다!!	
순조로운 진행, 짜여진 형식 안에서의 자유로운 토론,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의견 교류의 활발함.	팀워크도 다지고, 공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

사업 진행 과정

Process

1차 역량강화교육

일시	25. 6. 28.(토) 10:00~16:30
장소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
참여자	총 23명 (참여자, 강사, 센터 등)
목적	실질적인 도구와 방법 학습을 통한 프로젝트 실행역량 강화
내용	노선을 활용한 활동 아카이빙 교육, 대상에 따른 소통 및 브랜딩 교육, 예산지출 회계교육



2차 역량강화교육

일시	25. 7. 15.(화) 10:00~20:00
장소	커먼즈필드 춘천
참여자	총 23명(참여자, 강사, 센터 등)
목적	공익활동 현장사례 탐방을 통한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인식 확장, 인사이트 발견
내용	춘천사회혁신센터 소개, 커먼즈필드 춘천 공간투어, 입주단체 활동사례 공유(3곳), 단체별 소그룹 간담회 등



사업 진행 과정

Process

프로젝트 실행

기간	25. 7. ~ 9.
참여자	총 28명, 7팀
내용	팀별 공익활동 프로젝트 추진 (7팀)

1. 가나다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Si말벗 '나온'

중장년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Si기반 맞춤형 말벗 서비스 개발
2. 다시쓸권리

나도 초보환경활동가 & 다시쓸학교

'다시쓸권리'를 주제로 재사용, 재활용과 관련한 회차별 프로젝트 진행 (공동체모임, 학내 캠페인)
3. 디지털ON기

디지털ON기: 노인을 위한 키오스크 길잡이 프로젝트

노년층 대상 키오스크 사용 가이드북 제작, 교육 및 실습
4. 몽당&GO

너의 꿈을 응원해, 함께 도전해보자!

현직 초등교사들의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 및 학습지 제작
5. 손으로 그리는 세상

점자키링 만들기 체험

점자도구를 활용한 키링 만들기 체험부스 운영, 인식개선교육
6. 인라이트

무지개연대기: 장애와 비장애, 함께쓰는 모험의 이야기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놀이 제작 및 시연
7. 한울한울

<연천, 한울한울> - 지역과 청년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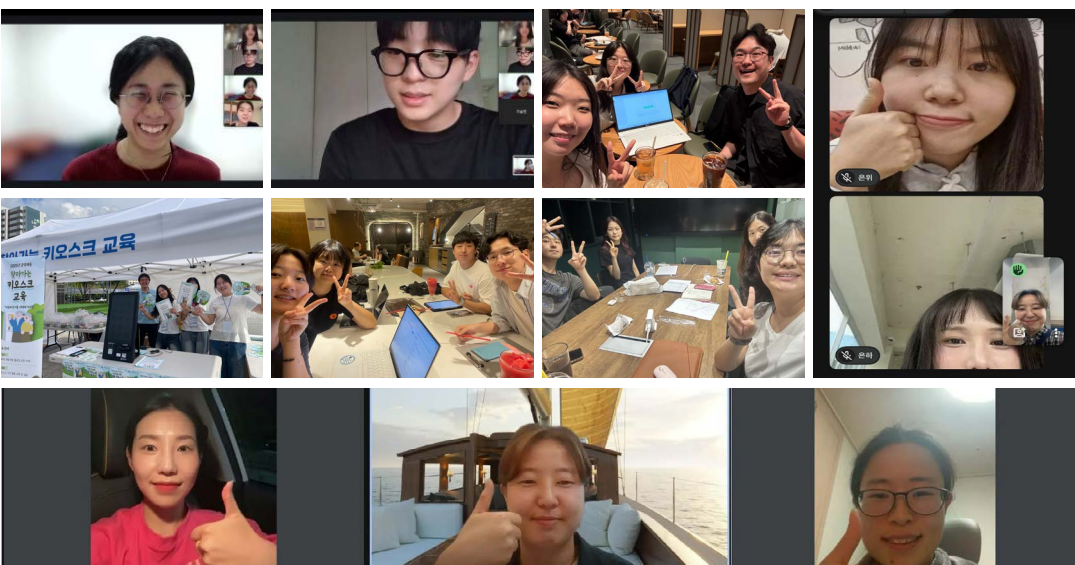
'지역소멸'을 주제로 지역과 청년을 잇는 필름카메라 사진 기록활동, 전시 및 아카이브 제작



사업 진행 과정

Process

멘토링	
기간	25. 6. ~ 9.
장소	온라인오프라인
횟수/시간	7팀 총 20회 진행 (팀별 3회 내외) / 회당 2시간 내외
목적	프로젝트 기획·실행에 있어 안정적인 정착 및 완수지원 기존 청년활동가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 생성을 통한 공익활동 이해 확장
내용	팀별 프로젝트 기획·실행 등 전반 과정 퍼실리테이션, 멘토링



사업 진행 과정

Process

성과공유회	
일시	25. 11. 1.(토) 14:00~18:00
장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
참여자	총 32명 (참여자, 멘토, 센터 등)
목적	팀별 프로젝트 활동 성과공유, 회고, 마무리
내용	사업경과보고, 네트워킹, 팀별 활동사례발표, 멘토특강, 수료식 및 시상, 소감나눔, 활동 체험·전시 등



comments

준비해주신 분들의 정성과 노고가 느껴지는 행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알찬 프로그램 준비해주셔서 감사해요 :)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주신 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다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셨고, 특강도 지루하지 않고 깔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과도 맛있었어요!! 사실 다른 기관에서 이런 행사 참여해보면 상투적인 느낌의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익해봄은 센스 있게 딱 필요하고 재미있게 진행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4

일곱가지 여정

Project Stories

1. 가나다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시말뱃 '나온'>



추진배경

은퇴, 경력단절 등으로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상을 고민하기 위한 맞춤형 안내 부족

목표

중장년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연결

내용

중장년층이 겪는 삶의 공백기 속에서 일, 여가,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시기만 맞춤형 개인화 말뱃 서비스 개발

세부활동

- 중장년층 관련기관 이용자 대상 인터뷰
- 중장년 맞춤형 시말뱃 프로토타입 개발
- 베타테스트를 통한 피드백 수집 및 반영·보완
- 베타테스트를 위한 다양한 홍보 진행 (SNS광고, 교내 포스터 부착, 카페/당근마켓 등)

"나온" 소개!

중장년 대상 복지기관 정보 및 취미·재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문답하는 시말뱃



#중장년층 #시 #제2의삶 #여가 #재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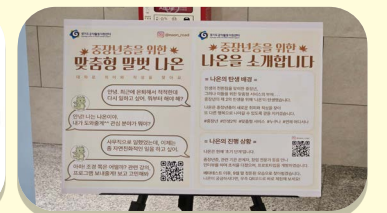
활동결과

- 성남시 내 중장년 및 노년층 대상 인터뷰 진행(공공기관, 도서관, 공원, 문화의집 등)
- 중장년 맞춤형 정보탐색·상담 시뮬레이션 기능 구현한 시말뱃 프로토타입 제작 1회
- SNS광고: 경기도 내 45~64세 대상 1만명 도달, 클릭률 6.81%, 5.6%
- 구글 설문조사 111명 응답
- "중장년층을 위한 서비스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어 편리했다",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 좋았다" 등 긍정적인 사용자 피드백 청취

기억에 남는 순간 & 느낀점

은주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를 이끌어 가는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끌어내는 일은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들고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큰 배움도 얻었습니다. 특히 삶의 연륜에서 나오는 깊이와 시각을 체감하며, 세대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림 중장년층 분들이 될 더 좋아하시고 원하실지 알아보고 청년층과 잇는 일을 꾸준히 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2. 다시쓰권리 <나도 초보환경활동가 & 다시쓰학교>

수원, 포천

추진배경

환경문제와 탄소중립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이 필요,
기후위기시대 당사자인 청년·청소년이 참여하는 실천적 캠페인 필요

목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문화 확산 및 탄소중립 이해 증진

내용

"다시쓰권리"를 주제로 일상 속에서 재활용, 재사용, 수리, 수선과 관련한
회차별 프로젝트 진행, SNS 운영

세부활동

1회차(8/24):나도 초보환경활동가

- 의류 수선, 업사이클링 체험,
환경교육, 집담회
- 가볍고 쉽게 환경문제를 접하는
공동체 모임 진행

2회차(8~9월):다시쓰 학교

- '대진대학교' 내 분리수거함 시범설치(9/3)
- 사전사후 인식조사(8~9월)
- 학내 홍보부스 운영(9/9)
- 학생들이 재사용·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캠페인 진행

#재사용 #재활용 #환경 #권리



활동결과

- 대진대학교 학내 분리수거함 시범설치 캠페인 사전·사후인식 조사 110명 이상 응답
- 응답자 중 87.7%가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과 긍정적 영향을 체감했다"고 응답
- 캠페인 홍보부스 대진대학교 재학생 65명 참여
- 대진대학교 및 포천시탄소중립지원센터와 연계한 향후 분리수거함 확산 가능성 논의
- '다시쓰권리' SNS 계정 총합 조회수 2만회 이상 기록, 온라인 상의 환경활동 확산 유도

기억에 남는 순간 & 느낀점

- 승한 직접 학교에서 보라 주임님과 함께 쓰레기통을 설치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부스 설문 운영 및 피드백을 통해 '자신도 이러한 프로젝트나 활동을 하고싶다'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환경활동 의지를 확인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 건일 제로웨이스트샵 '지구인의 놀이터' 방문에서 다양한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제품들을 보고 버려지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창의성과 병뚜껑 업사이클링 체험을 통해 환경 보호가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보며 환경 활동의 밝은 미래를 엿보았습니다.



3. 디지털ON기

<디지털ON기(溫技): 노인을 위한 키오스크 길잡이 프로젝트>



추진배경

키오스크 보급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노년층은 사용에 어려움을 느낌
단순한 교육을 넘어 반복학습과 정서적 지지까지 필요한 상황

목표

청년이 주도적 매개자가 되어 지역 내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포용문화 확산

내용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 대상 가이드북 제작, 교육 및 실습

세부활동

- '어르신을 위한 쉬운 키오스크 사용안내서' 교육 가이드북 및 부채 제작, 배포
- 광명시 내 아파트 경로당 대상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 시도
- 광명시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제 29회 노인의날 행사' 사회안전ZONE 부스운영
- 노년층 대상 1:1~1:2 키오스크 교육 및 실습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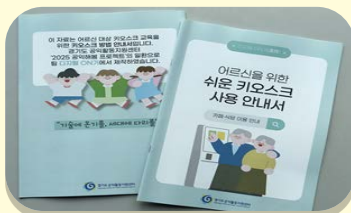
#노인 #디지털리터러시 #가이드북 #교육

활동결과

- '어르신을 위한 쉬운 키오스크 사용안내서' 가이드북 및 부채 제작, 배포 150부 이상
- 기존 광명시 경로당 어르신 대상 3회차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 시도 →
- 변경 노인의날 행사 부스 교육실습 진행
- '제 29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키오스크 교육실습 부스 총 150명 참여
- 1:1, 1:2 소규모 실습으로 어르신 개인의 속도와 이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도를 통해 "막상 해보니 쉽다", "이제는 혼자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등 긍정적 반응 청취

기억에 남는 순간 & 느낀점

- 민서 활동을 마무리하기까지 정말 많은 계획 변경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해나가는 경험이 정말 소중하게 남았습니다. 항상 옆에서 서포트해주신 공익활동지원센터 팀원분들과 멘토님, 함께한 디지털ON기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 승현 활동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세대마다 익숙한 언어와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설명하는 것보다, 한 단계씩 천천히 함께 확인하며 어르신의 '이해 속도'를 따라가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기다림과 경청의 태도를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공익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었다면, 이번 활동을 거치면서 서로의 삶이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이런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4. 몽당&GO <너의 꿈을 응원해, 함께 도전해보자!>



추진배경

이주배경 아동들의 진로 연계 교육 부족
교육·돌봄·문화체험의 수요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 필요

목표

꿈을 찾고,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다문화 아동들의 성장

내용

현직 초등교사들의 이주배경 아동 대상 직업 체험 및 특성에 맞는 진로 워크북 제작

세부활동

- 포천시한문화가정지원센터 아이들 대상 잡월드 직업 체험 학습 진행, 인터뷰 수집, 활동지 작성(8/15)
- 대상 아동의 특성에 맞는 진로 워크북 제작
- 워크북 배포 및 피드백 수집

#이주배경 #아동 #직업 #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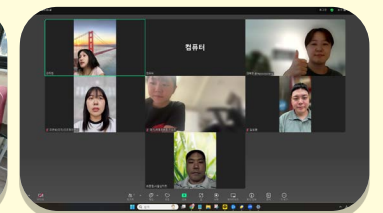


활동결과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이주배경 아동 관련 기관과 협업 시도, 협업 1곳 (포천시 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
- 약 30명의 이주배경 아동(초1~초6)과 잡월드 직업 체험 학습 진행, 인터뷰, 활동지 작성
- '꿈을 향한 다리-글로벌 직업탐험 워크북' 제작 및 배포

기억에 남는 순간 & 느낀점

- 종영** 돕겠다는 마음만으로는 쉽지 않은 과정들, 도움을 필요로 기관과 조율해 나가야 할 것도 예상보다 많았고 바쁜 협업으로 우리 팀 내에서도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완주한 우리가 대견하다.
- 주원** 한국어가 서툰 아이가 처음엔 말이 거의 없었는데, 그림 활동과 게임을 섞어 수업을 하니 스스로 먼저 말을 걸어주었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언어보다 같이 웃는 경험이 먼저라는 걸 느꼈고, 교사가 수업 내용을 조금만 다르게 구성해도 아이들의 참여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문화 학생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움을 주는 동반자로 보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5. 손으로그리는세상 <점자키링 만들기 체험>



수원

추진배경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자체계이지만 비장애인에겐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개념으로 여겨짐.
모두가 함께 일상 속에서 포용적 문화를 가지는 것이 필요

목표

시민들이 직접 점자를 체험하며 시각장애 인식개선에 참여하고 일상 속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 환기 및 공감대 형성계기 마련

내용

점자 도구를 활용한 키링 만들기 체험, 인식개선교육

세부활동

- 시각장애 당사자 인터뷰 진행 (7/16)
- 수원시 로데오 광장에서 '점자 키링 만들기 체험' 및 인식개선 교육 부스 진행 2회 (7/31, 8/15)



#시각장애 #점자 #인식개선 #일상생활

활동결과

- 저시력 시각장애 당사자 인터뷰 진행 1회
- 점자키링 만들기 체험부스 진행 2회, 총인원 80명 참여, 1차 대비 2차 활동참여인원 176% 증가
- "점자를 직접 짚어볼 수 있어서 신기했다", "체험 활동이 장애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키링 만들기로 쉽게 접할 수 있어 좋았다", "점자에 대해 사용법을 처음 들어 신기하고 조금 더 대중화 되었으면 좋겠다" 등 피드백 청취

기억에 남는 순간 & 느낀점

준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한발씩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매우 큰 도전이기에 끝까지 했다는 것이 매우 뿌듯하다.

승연 모든 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활동해야 하다 보니, 처음 도전해보는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이상적인 활동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활동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 개선할 점을 반영하여 두번째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부족한 부분들을 강화했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 도전하며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 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성장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 분들의 불편함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6. 인라이트

<무지개연대기: 장애와 비장애, 함께쓰는 모험의 이야기>

부천, 광명, 인천

추진배경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간의 상호작용 부족
자연스럽고 즐겁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통합교육을 통해 상호이해 및 사회성 증진 필요

목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적 놀이 개발 및 장애·비장애 아동 간 상호이해 증진

내용

장애, 비장애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놀이 제작 및 시연

세부활동

-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놀이 키트 '무지개연대기: 장애와 비장애, 함께쓰는 모험의 이야기' 기획·제작
- 통합놀이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8/9)
- 초등생 대상 놀이 시연 및 인터뷰 진행 2회 (9/25, 9/26)

#장애 #비장애 #통합놀이 #통합교육



활동결과

-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놀이 키트 기획 및 제작 1회 (3가지 놀이)
- 대안학교 2곳 초등생 대상 놀이 시연 진행 2회, 총 15명 참여
- 초등특수교사 포함 자문회의 진행 1회
- "장애에 관해 더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더 하고싶다, 더 놀고싶다" 등 학생들의 긍정적 피드백 청취
- "놀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진행한 것이 좋았다"는 교사 피드백 청취

기억에 남는 순간 & 느낀점

정민 가장 어렵고 기억에 남았던 것은 놀이 키트를 기획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 생각한 것은 놀이보다는 보드게임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보드게임을 어떻게 제작해야 할까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생각을 바꿔서 놀이에 중점을 두고 기획을 하니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획하면서도 속으로 계속 비장애 아동들이 유치해하면 어떡하지 와 장애 아동이 참여를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연을 가보니 아이들이 잘 따라와주고 다 재밌다고 해주고 다음에도 또 와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다행이고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원 처음 다같이 모여서 1박 2일 시간 보낸 워크숍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공익 문화인이었던 내가 공익에 관심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많은 것을 묻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단 1초도 헛되지 않은 값진 시간이었다.



7. 한울한울 <연천, 한울한울> - 지역과 청년을 잇다



추진배경

소멸위험지역인 연천은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정도가 높음. 기존 제도 중심의 탑다운 정책에 대비해 청년이 주체가 되어 바텀업 방식으로 지역에 머무는 이유를 직접 경험 하고 발견하는 문화기반의 참여형 공익활동이 필요

목표

청년 주도의 참여형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 및 지역정체성 인식 강화

내용

청년의 시선으로 소멸위험 지역 '연천'을 필름카메라로 기록·전시, 아카이빙

세부활동

- 연천 청년단체 '닷별'과 인터뷰 및 홍보 등 협업 진행
- 연천 청년 대상 필름카메라 기록 및 에세이 작성 참여자 모집 및 실행
- 촬영본 및 에세이를 아카이빙한 온라인 아카이브 제작
- 연천 청년 참여자 인터뷰, 필름 촬영 (8/31)
- 서울청년센터 성북, 2025 공익활동페스타에서 전시 및 설문 수집

#지역소멸 #청년 #사진 #기록

활동결과

- 연천지역 필름카메라 기록 활동 총 10명(연천청년 5명, 외부청년 5명)
- 필름사진 및 에세이를 기록한 온라인 아카이브 제작 1회
- '<연천, 한울한울> - 지역과 청년을 잇다' 전시 진행 2회 (서울청년센터성북, 2025 공익활동페스타)
- 연천 청년문화예술공동체 '닷별'과 홍보참여자 모집 등 협업 1회
- 코레일 청량리역, 서울역, 서울청년센터 성북 등 전시 시도
- 전시 설문을 통해 "관람 전과 비교해 연천이 가진 풍경과 정취를 새롭게 알게되었다" 50% 응답 등 피드백 청취

기억에 남는 순간 & 느낀점

혜진 연천에서 회의를 하는 동안 비가 계속 내려서 사진 촬영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나오자 비가 그쳐 있었고 젖은 길과 맑아진 공기가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가볍게 걸으며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순간이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날이었습니!

연주 편견이 깨졌던 순간과 연천 사람들의 한대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카메라를 드는 순간 만났던 문화해설사 할아버지, "연천좋은데여. 좋은 것말 찍어가" 라는 말, 전곡리 박물관까지 태워주시고 해설을 해주셨던 친절. 2시간이 넘게 걸렸던 연천 가는길과, 폭우를 만나고, 길을 헤매고 상황은 나쁜 데 가까웠지만 연천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5

공익의 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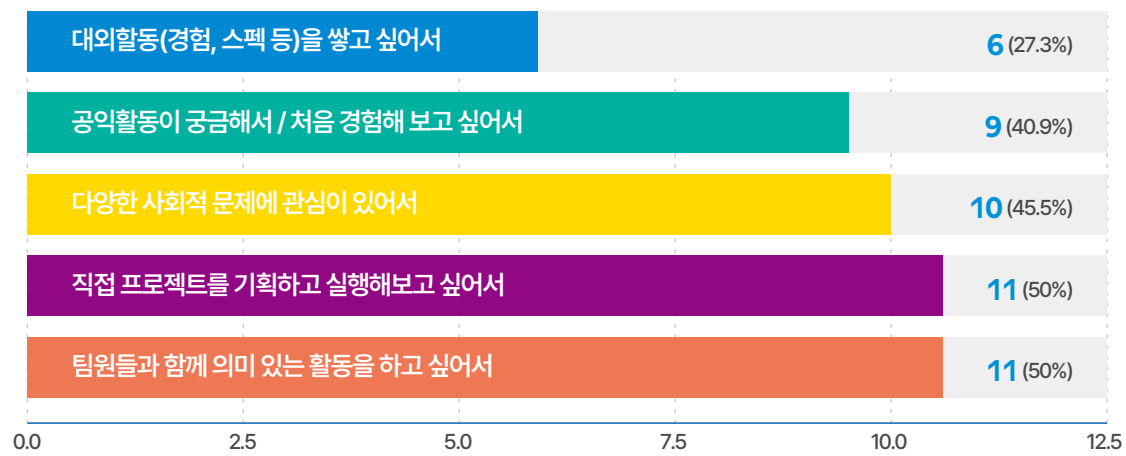
Feedback, Next, Companions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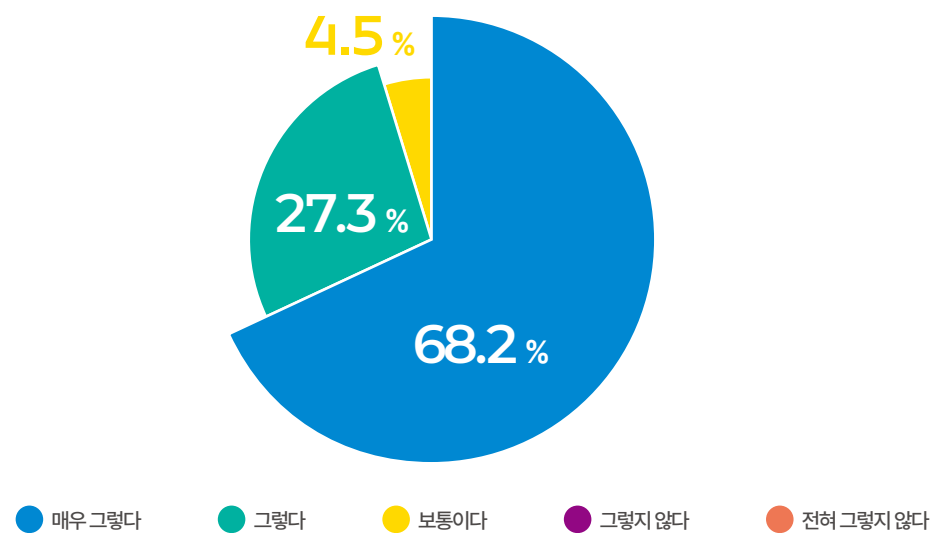
Feedback

조사기간	2025. 11. 1. ~ 11. 8.
조사내용	공익해봄 프로젝트 사업만족도 조사
조사대상	설문참여자 23명 중 22명 응답 (응답률 : 96%)

1. 공익해봄 프로젝트를 신청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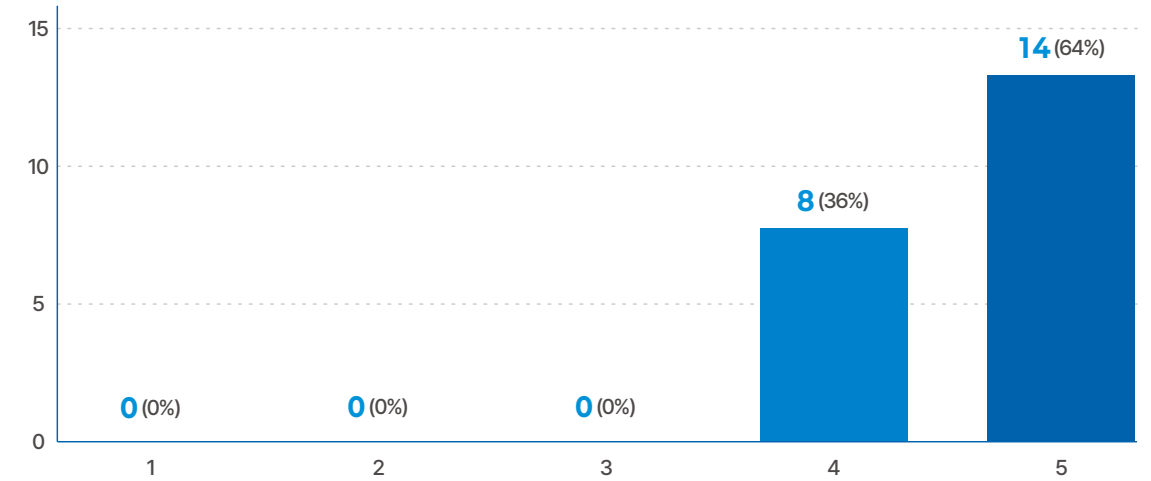
2. 공익해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 기대했던 것을 실제로 얻어갈 수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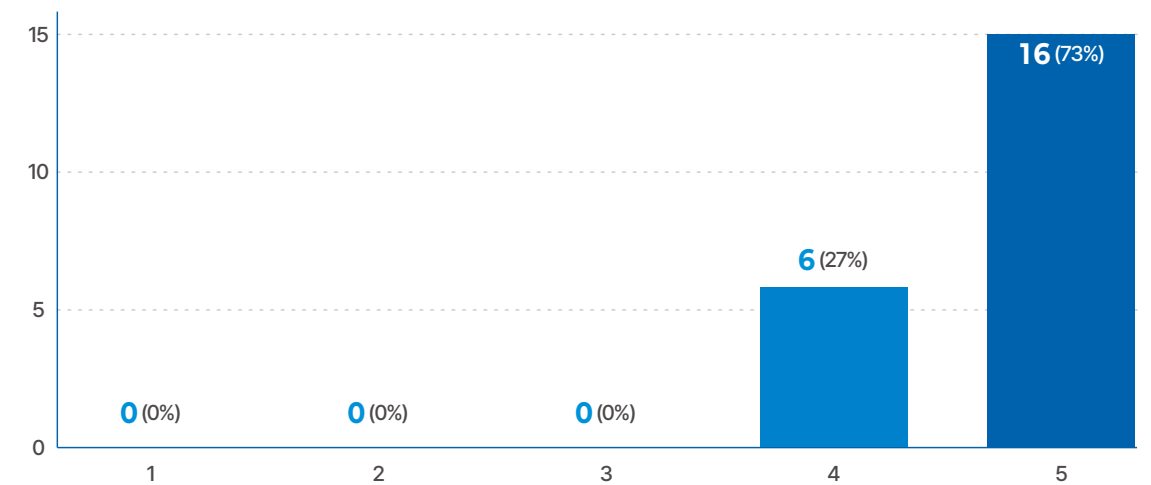
만족도 조사

Feedback

3. 활동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다고 느끼셨나요? (멘토링, 교육, 행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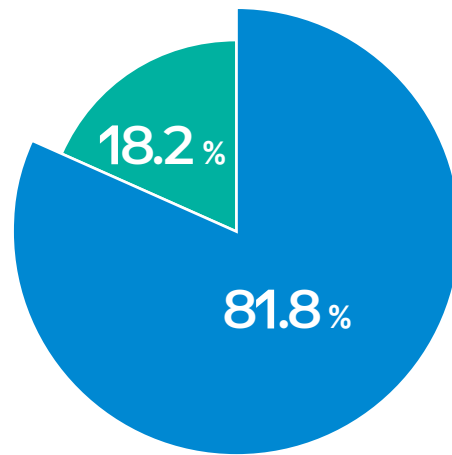
4. 사업운영(안내, 일정, 소통, 지원 등)이 원활하다고 느끼셨나요?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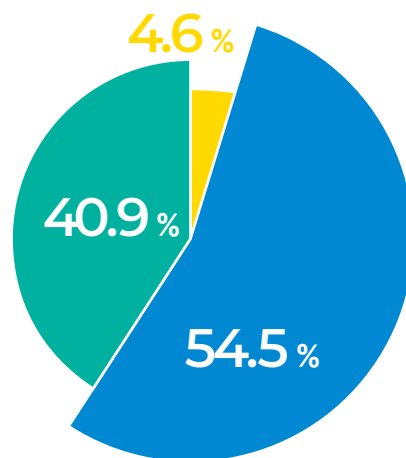
Feedback

5. 전과 비교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느끼시나요?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6. 공익활동을 나의 일상 또는 진로와 연결해 볼 계기가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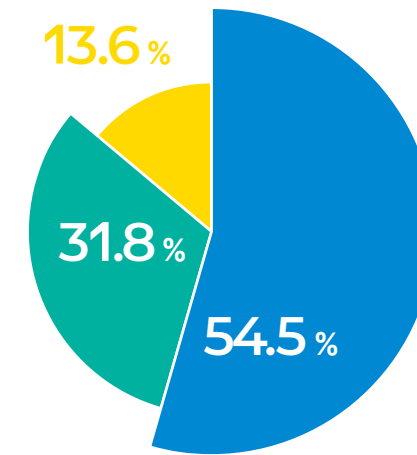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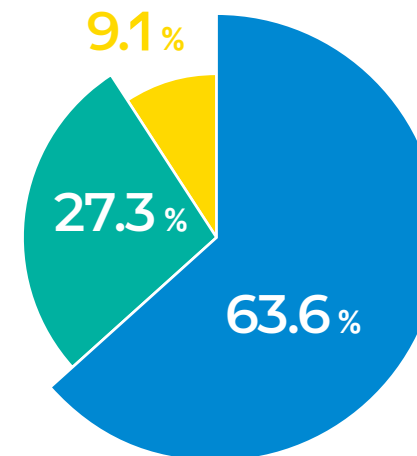
Feedback

7. 프로젝트 이후에도 공익활동을 이어가거나 새로 시도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8. 공익해봄 프로젝트를 친구,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두루뭉술하게 잡혀 있던 공익활동에 대한 개념과 내가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활동 방향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얻고 갑니다.
- 한 줄짜리 스펙이 아닌 보고 배우고 느낄 점이 많은 경험이었다. 계획을 실행하고 실패하고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 청년들과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고, 공익활동 관련 다양한 교육과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 실제로 공익활동에 참여해 현장에서 처음부터 기획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
-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고, 같은 팀원들 뿐 아니라 다양한 분들과 친해지며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다양한 인사이트와 뜻깊은 경험
- 이전까지는 그냥 제가 하고 싶다고만 그저 누가하니까 아니면 애초에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을 참여한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혹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제가 선정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많은 걸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서 큰 경험이 될 것 같아요!
- 공익활동에 대한 다양한 유형과 방법들을 폭넓게 알게 되었습니다.
- 무겁고 어렵게 느껴졌던 공익활동이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것, 대단한 사람이 공익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직 공익활동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들의 선한 마인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공익활동이라는 것이 너무 사소해서 허무하게 느껴지지만 했었는데 나의 작은 실천과 도전이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고 또 다른 변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익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시 다질 수 있게 만들었다. 또 직접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는 경험 또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

- 공익활동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팀으로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이어나가는 방식과 소통 방식, 그리고 하고 싶은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역량에 있어서도 큰 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활동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고, 이번 공익해봄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 공익 활동을 일회성에만 그치지 않고 이 활동이 참여자들에게 인상적으로 남아 인식변화에 기인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생각해보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공익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다시 정의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인식의 변화와 경험을 통한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 이로운 세상은 이로운 사람이 만든다!
- 감사합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경험해보셨으면 해요!!!
- 첫 캠프 첫 오리엔테이션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활동들도, 사람들도 모두 너무나무 어색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만한 만남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 일정상 더 자주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게 아쉬워요...
- 새로운 분들을 만나 바로 기획을 하려고 하니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많이 웃고 많이 얻어간 것 같습니다!
- 공익을 거창하게 생각했었는데 작은 실천도 공익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조금씩 실천해나갈 것이다
- 공익활동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공익활동이라는 것이 엄청 거창한것이 아니라 소소한 한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공익활동이라는 것에 대한 허들이 낮아져서 좋았어요. 그리고 공익활동을 하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원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해나가는 프로젝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가고 싶은 연결과 시도

Next steps

- 사회적 관심 확장과 실천 -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환경, 교육, 인권, 다양성 등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서 소규모 워크숍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 주변 청년들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결국은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구체적이진 않지만, 일상 속에서 필요한 변화나 목소리를 듣고, 작은 문제라도 연결해보는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을 나누면서, 사람들과 연결하는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싶다.
- 지역 커뮤니티 간 교류
- '나온'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중장년을 위한 응원이었습니니다. 고3학생이나 입시생을 위한 공익활동도 해보고 싶습니다.
- 청년과 청소년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과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싶습니다.
- 학교에 환경과 관련된 중앙 동아리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교내 쓰레기통을 전부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변경, 리사이클 제품 제작 등을 해보고 싶습니다.
- 공익활동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으로 삼고 싶습니다.
- 작은 불편을 인지하고 해결 방안과 가능성을 고민해보는 습관을 이어가고 싶다. 우리가 쉽게 해결하는 상황들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공감하고 도움을 주며 연결된 사회를 실현시켜나가고 싶다.
- 만약 또 공익활동한다면 아동 말고 노인,빈곤 쪽으로 진행해보고 싶어요!
- 정규수업 속 활동 예시에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섞어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수업을 꾸준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또 학부모와의 소통에서도 쉬운 한국어와 시각 자료를 활용해, 학교 소식을 더 잘 전달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고자 합니다.
- 회사나 기업등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등의 활동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윤과 사회적 복지 증대라는 딜레마를 효과적으로 해소해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ex: 키오스크 시각장애인 도움 프로그램 도입, 버스 번호 음성지원 도입 등)

센터에 바라는 점

Suggestions

- 공익해봄 프로젝트 종료 후 지속적인 지원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나, 우수 사례의 경우 함께 활동을 해본다거나 하는 방법도 좋을 거 같아요.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싶고 중간에 한번 다른 팀원들과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 전체 중간공유회를 서로의 진행 상황을 참고하는 자리가 있으면 더 좋겠음. 다른 팀이 고민했던 문제점을 오히려 우리 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싶은 부분들도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있는 환경에보드게임을 투입할 장소는 현직 교사들인 저희 학급엔 흔한 일이에요.
- 중간 성과 공유와 같이 다른 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저희가 활동한 내용등을 바탕으로 많은 사례들이 생겨 이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업 계획안을 참고하고 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활동들을 지속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첫발을 뗀 것일 뿐, 더 나은 사회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한 사람들

Companions

멘토 이종경 가나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 프로젝트라는 이유만으로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있어 쉽게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익해봄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지금 돌아보면, 멘토로 함께하기로 한 선택은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팀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래전 제가 처음 공익활동을 시작하던 순간들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몽클함과 함께, 잠시 잊고 지냈던 '초심'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팀원들이 공익활동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멘토 김의진 다시쓸권리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익활동을 해보고자 하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뜻깊었어요. 기대했던 것처럼,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직접 관찰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끝까지 고민하는 팀원들의 모습에서 큰 가능성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공익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보다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께서 보여준 책임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응원은 앞으로의 활동에서 큰 힘이 될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한 사람들

Companions

멘토 김기강 디지털ON기

공익해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설렘을 느끼고 발을 동동구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보며, 나의 "초심"을 한번더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익의 파트너가 되면서 네트워크의 기회가 되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멘토 김혜영 몽당&GO, 한울한울

안녕하세요, 한울한울팀과 몽당&GO팀 멘토를 맡았던 가을입니다. 먼저 긴 여정을 완주하신 모든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공익해봄은 청년 공익활동가가 점차 사라지는 위기 속에서, 2030세대가 공익활동을 처음 경험하고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인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로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활동가분들께 이번 활동이 재미있고 가치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일회성 경험을 넘어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과 관계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삶과 사회에 대한 못다한 수도도 나누고, 새로운 활동도 같이 상상해보고 싶습니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함께한 사람들

Companions

멘토 이슬기

손으로그리는세상

저의 경우를 먼저 얘기해 보자면, 대학생살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시절 우연히 환경동아리를 통해 작게나마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대단하지 않던 작은 마음이 지금까지 나를 활동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공익해봄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며 그때의 제가 떠올랐지요. 함께 해준 손으로 그리는 세상 팀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멘토링 과정에서 스스로 아쉬움도 남지만 그만큼 멘토로서도 배우고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이 참여자 분들께 공익활동의 든든한 첫 걸음이 되고, 삶의 한 칸에 가볍지만 따뜻하게 공익활동을 두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멘토 류지현

인라이트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팀원들에게 이 활동이 얼마나 기분 좋은 경험이 되는지 느끼게 해주고 싶어 멘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라이프팀과 약 6개월간 함께 달려온 시간들은 꽤 치열하고 바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모두 종료하고 찬찬히 돌아켜보니, 처음 만남에서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했던 목표들을 모두 달성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실행해 본 이번 경험이 팀원들 모두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익활동이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란 점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익활동을 진심으로 때로는 취미처럼 가볍게 여러 형태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공익해봄 한 마디로 ~였다!”

In a word

사익

여행

초심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느낌

발판

소풍길

웰컴투더쇼

1학기

온기

따뜻한 기쁨

첫 해봄

뜻밖의 가능성

새로운 의미

성찰

대한민국의 빛과 희망

배움

(유쾌한) 뒤통수

눈높이

사회와 나를 이어주는 마중물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매개체

특별한 경험

스파크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험

사각지대

교실을 다시 보게 한 안경

새싹을 보는 재미

도전할 용기

소중한 만남

비트

새로운 도전

새로운 세상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공익 기록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소중한 여정

인스타그램



기타 참고링크



프로젝트 영상 모음.zip



발행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발행일	2026년 01월 08일
디자인 및 인쇄	타라 그래픽스
기획 및 편집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
홈페이지	www.gggongik.or.kr
인스타그램	@gggongik_center
블로그	https://blog.naver.com/gggongik

COPYRIGHT©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